



윤 하 운

제일사료(주) 대표이사
본회 부회장, R&D위원장

“ 작금의 곡물가 상황이 몇 년씩이나 오래가지 않을 것 ”

아파트 뒷산을 오르는데 굉장히 낮설다. 10년을 다녀, 밤중에도 불빛 없이 혼자 다니는 길인데도 말이다. 5월이 지나면서 숲풀이 자라고 나뭇잎들이 무성해져 영 판길 판 산이 돼버린 것이다.

사료업계, 축산업계에서 일해 온지 꽤 오래다. 그런데도 근래 모든 것이 낮설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세상에 툭 떨어져 내려 온 듯 하다.

항생제 문제, 동물성 단백질 원료 문제, HACCP, 주 40시간제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제 지금 뭐야, 뭐가 어떻게 돌아 가는거야" 하는 것이 작금의 사료원료 시장이다. 잡박류와 우지, 비타민, 인산칼슘 등은 차치하고라도, 불과 2년전에 130불하던 미산 옥수수 선물 가격이 6월 현재 420불이며, 230여불하던 미산 대두박이 550불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더우기 이런 곡물가 상황이 제법 오래 갈 것이란 예상이다 보니,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두워 갈 길을 모르겠다. 할 수만 있다면, 한 2년 다른 곳에 가서 일 좀하다 왔으면 좋겠다.

과연 어떠한 노력과 얼마큼의 희생을 치러야 우리 사료업계, 축산업계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땅의 단백질 식량 터전인 농장 한곳 한곳이 이 엄청난 도전과 시련을 어떻게 견뎌 내고 헤쳐 나갈 수 있을런지가 걱정이다.

원료가격이 양등하고 있는 이유가 아주 낮설고 복잡하다. 원인 하나 하나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서로가 얽혀 상승작용을 하며 문제를 키우는, 전에 없던 현상들이라 그것들이 초래할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하는 것들이다. 원인중 하나가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인데,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곡물 가격만이 아닌 세상을 온통 바꿔 버린 것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인들의 축산물 소비와 사료 수요를 늘려, 자국의 옥수수 수출을 못하게 하였고 결국에는 옥수수를 수입, 옥수수 국제 가격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투기 세력 등 세상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포함한 곡물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낮은 인건비를 기반으로한 중국의 활발한 제조업 활동은 온 세상에 저렴한 물품을 대

량으로 공급하여 세계 모든 나라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4%이상의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제 원유가를 폭발적으로 끌어 올렸고, 지속적인 원유가 양등은 식량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일, 즉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바이오 연료 수요를 촉발하여 세계 곡물 가격 상승에 불을 당긴 것이다.

더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에 의한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 달러 값을 떨어뜨리면서 국제 유가, 곡물가를 함께 올려 버렸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발 물가 안정으로 부터 초래된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은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거품을 일으켰다.

그러자 투기 자본은 그들의 관심과 투자를 곡물 시장으로 옮긴 것이다. 현재 곡물 선물 시장에서 투기 자본의 투자 규모는 5%미만이나,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마련이다. 얼마전 삼성경제연구소는 곡물 가격 상승에 미치는 투기자본의 영향을 40% 이상이라고 보고 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 경제를 활황으로 이끌며, 세계 교역량을 대폭 증대시켰는바, 해운시장에서의 선박 부족을 불러 선임료를 배가시켰다. '85년 기준 BDI 1,000 포인트를 15,000까지 올렸다. 배보다 배꼽을 더 크게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곡물 구매 가격이 대폭 올라 버린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후가 곡물의 작황, 시세를 결정하는데, 이상 기후의 원인인 지구 온난화의 주역 또한 중국이 아닐까 싶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란 원인 하나가 이렇게 어찌해 볼 수 없는, 견고하고도 복잡한 이유가 되어

사상 초유의 고곡물가 시대를 불러 온 것이다. 하물며, 중국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곡물가 상승 이유와 원인들은 복잡하기 그지 없다.

- 중국 뿐만이 아닌 인도, 러시아등 인구 대국의 경제 성장과 곡물 수요 증대,
- 경제적인 이유외에도 정치적인 이유, 투기자본등으로 야기된 원유가 양등과 그에따른 세계적인 바이오 연료 생산,
- 경제의 활황, 세계 교역량 확대와 선박 부족, 결과적인 선임료 폭등, 선박 부족은 2,000년을 전후한 세계 불황시 선박 건조가 주춤한 반면에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은 경제적 가치가 없던 먼 곳의 광산 개발, 경작지 개발 등을 가능케 해 먼 거리 수송과 선박 수요를 증대,
- 오랜 동안의 세계적 초 저금리로 초래된 과잉 유동성과 투기 자본이 주식 시장 침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곡물 시장에 투자 본격화,
-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등이 그것들인데, 하나 같이 낯설고, 비정상이며, 부자연스럽다.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며, 언제쯤 날 것인가, 그때까지 우리는 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이다. 최근에 업계 분들을 만나면, 예외 없이 한국 축산의 앞날을 걱정하는데, 그 염려가 매우 크다.

지난 3월 미국 카길사를 방문했을 때, 그들도 이 유례없는 고곡물가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고곡물가 문제는 다름 아닌 작금의 고곡물가 시장 자체가 해결해 줄 것 이라고 결론지었다. 나는 그말을 믿고 싶고, 믿는다. 위대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고곡물가 상황을 해결하고, 낯설음, 비정상, 부자연스러움을 정상으로, 자연스러움으로 원상 복귀시킬 것이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이 앞으로의 경제성장 저하를 반영하면서 최고치 대비 반토막이 났고, 세계 곡물의 생산,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카길은 곡물 증산을 위해 남미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들이 향후 10년간 쓸 수 있는 양만큼의 원유가 매장된 대륙붕 유전 개발을 검토 중이다. 곡물가 상승으로 선물 투자의 리스크가 커지자, 투기 자본은 이제 선물시장 투기에만 그치지 않고, 농장, 곡물저장시설, 선박등 현물을 사들이며, 어떤 면에서는 세계의 곡물 생산 잠재력을 키워 가고 있다.

시작 단계이긴 하나, 한국도 연해주라던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곡물 생산을 시도한다는 것 아닌가.

전에 없던 시장의 고곡물 가격이 각각의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곡물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전에 없던 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선박 건조 주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앞으로는 선박 수요가 떨어질 것이란 분석 때문에 세계 최고의 조선 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주식이 가격 또한 최고가 대비 50%나 떨어졌다. 1년여 후 쯤에는 세계 경기 둔화로 세계 교역량은 줄고 선박은 크게 늘어나, 국제 선임료를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시장이 해운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곡물가 자체보다도 선임료 하락은 우리나라 축산에서 그 의미가 큰데,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그만큼 올려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는 순환하며, 세상은 돌고 돈다. 이 순환의 법칙은 저자거리의 법칙이 아니고 과학임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의외로 작금의 고곡물가 상황이 몇 년씩이나 오래 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올라 갈때와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 또한 꼬리

가 몸통을 흔들어댈 것이기 때문이다. 옥수수 선물 가격이 300불, 대두박이 450불을 넘고, 한국 기준 선임이 150불에 육박한다면, 그 상황은 아주 비정상이고 부자연스런 것이 아닌가. 시장이 정상으로 돌려 줄 것으로 믿는 것이다. 더우기 가격이 높으면 높을 수록 정상으로의 복귀가 그만큼 빨라 질 것이다. 지금 시세와 상황이 그런 수준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곡물의 액면 가격이 아닌 실질 가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과거의 100달러와 현재의 100달러는 결코 같은 값이 아닌 것이다.

작금의 상황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렇게 어려운 현실이지만, 난 우리 업계가 힘을 냈으면 한다. 순간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좌절하고 말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한 2-3년간 농장, 사료회사 모두가 위기관리, 긴축 경영을 하자고 하고 싶다.

기술력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개선, 향상을 이루고, 잠재력을 키워 나갔으면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한데, 그 어느때라도 우리가 이룩한 개선은 이루어야 할 개선에 비하면 1%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생산성 30% 향상, 부가가치 2배 구현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삼성생명 탁구 선수인 유승민이 중국 선수들의 이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좌절하며 쓰러져 있을 때, 그의 코치가 유승민에게 한 말은 "땀을 믿어라"는 것이었다. 유승민은 땀으로 중국의 공격을 막아내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 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